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시편 119(118),137,124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르웁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제1독서 | 예제 33,7-9

화답송 | 시편 95(94),1-2.6-7ㄱㄴㄷ.7ㄹ-9(㉠ 7ㄹ과 8ㄴ)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

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제2독서 | 로마 13,8-10

복음환호송 | 2코린 5,19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복음 | 마태 18,15-20

영성체송 | 시편 42(41),2-3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구요비 옴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 ‘나와 너’의 친밀함, ‘영원한 나’의 현존

학적인 통설에 의하면 10만 년 전 이 지구상(地球上)에는 최소 6종류의 인간종(種)이 살고 있었는데(예컨대 네안데르탈인, 호모에렉투스, 크로마뇽 등) 그중 현재의 인간종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만이 살아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그 생존의 이유 중 하나로 호모 사피엔스는 ‘뒷담화 문화(文化)’가 있어서, 뒷담화를 통하여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자기들의 생존력과 생존 영역을 넓히고 발전시켜 왔다고 진단합니다(『사피엔스』 p42~60).

여러분은 뒷담화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뒷담화(談話)란 앞에서는 아무말 못하면서 나중에 뒤에서 비판하고 욕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수다를 의미하는데, 부정적인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뒷담화 문화 안에도 소통, 친교, 대화라는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순기능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 제자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소통과 대화가 강조됩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 그가 그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마태 18,15-17)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대화의 하느님이십니다. 대화의 하느님이심은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나와 너의 친밀한 관계로 대해 주심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은 야훼 하느님께

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늘 “나 야훼가 너 이스라엘에게 말한다!”로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너’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너’를 통하여 구체적인 개인인 ‘나’에게 말씀을 전하시길 원하신다는 뜻이겠습니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20)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라는 친밀함이 있을 때 그 뒤에는 ‘영원한 나’가 현존(現存)한다’고 통찰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대화의 하느님이심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신앙고백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외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 각자를 ‘나와 너’의 관계로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인 우리가 성숙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언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 대화의 문을 열어 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죄까지 범한 사람까지도 마음으로 증오하지 않고,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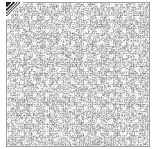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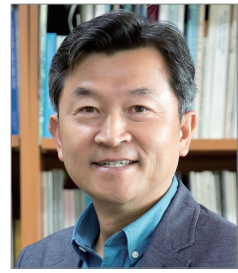
Obere Pfarre성당, 뉘른베르크, 독일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19-20)

서너 살 된 어린아이가 엄마의 지도에 따라 촛불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기도와 청원의 의미를 속삭이며 얘기하는 듯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 그 지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간구합니다.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정석 예로니모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아주 특별한 휴가

8월 초 아주 특별한 휴가를 보냈습니다. 전반부 3박 4일은 가족여행을 했고, 후반부 2박 3일은 수도원에서 개인 피정을 했습니다. 아내 헬레나와 휴가 계획을 짜다가 큰아들에게 여행 대장을 맡겨보았습니다. 큰아들은 가족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은 뒤 경주, 경산, 대구를 다녀오는 멋진 여행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스물아홉이니 그럴 만한 나이입니다. 맡기길 잘했습니다.

한결, 도운, 새운, 채운 네 아이와 엄마 아빠까지 여섯 명 한 가족이 토요일 오전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경주로 가는 차 안에서는 수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요즘 수학이 궁금해진 아빠가 묻는 질문에 컴퓨터와 물리학을 전공한 아이들이 ‘수학은 과학의 언어’, ‘수학은 사람들의 소통을 돕는 도구’라며 조리 있게 답을 했습니다. 아빠와 아이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헬레나는 ‘아이들이 참 잘 컸구나’ 싶어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유적들과 맛집 탐방도 하고, 경주역 앞 성동성당에서 주일 저녁 미사도 드리고, 박물관과 전시관까지 알찬 경주 여행을 마친 뒤 헬레나의 고향인 대구와 경산의 선산까지 들렀다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외가 선산은 첫 방문이었습니다. 땀벌 아래 땀 흘리며 산소까지 오르느라 고생했지만, 엄마 집안 어르신들의 삶과 역사를 접하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행 일정 짜기와 숙소 예약에 맛집 찾기까지 아이들이 도맡아 하니 참 편안했습니다. 부모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이렇게 자식에게 믿고 맡긴 뒤 뒷전에 머물러도 됩니다. 랫잇비(Let it be)가 역시 정답입니다!

서울 오는 차 안에서 남은 휴가에 개인 피정을 하고 싶었더니 헬레나는 바로 검색한 뒤 예약을 해줬습니다. 그 덕에 인천 계양산 아래 가르멜 수도원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성당에 홀로 앉아 기도드리고, 책도 읽고, 산

책도 하고, 가만히 누워 쉬기도 하면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요즘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 음성을 들려주세요. 제게 바라시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피정을 하면서 다시 청했더니 주님께선 “성녀 테레사와 대화해보렴.” 하고 답해주십니다. 16세기 종교개혁 격동기에 가톨릭교회 개혁을 위해 맨발 가르멜 수도회를 비롯해 17개 수도회를 창립했던 성녀 테레사를 오래전 스페인 아빌라 여행 때 처음 만났는데, 가르멜 수도원에서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나 봅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분을 더 공부하고 기도 속에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수도회가 출간한 좋은 책들이 눈에 띄어 구입해 읽고, 성녀에 관한 강의 영상들도 찾아 들었습니다.

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테레사 성녀의 이 말씀이 마음을 울립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 그분을 만나고 싶다면 그저 하느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행 준비는 아이들에게 맡기고, 대신 하느님께 한 걸음 다가갔던 아주 특별한 휴가였습니다.

를 이끄는
성경구절

하느님과
사랑하는
내말은
사랑하는
마르코 13,31

유임봉 스테파노 | 성산동성당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신앙생활 양심성찰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성체를 받아 모시지 못해서, 단체 모임을 할 수 없어서... 어찌 보면 이러저러한 핑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느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로서 교회 안에서 내려온 전통적인 기도인 '양심성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이며, 가장 비밀스럽고 성스러운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홀로 만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내밀한 양심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의무를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성찰하는 기도가 바로 '양심성찰'입니다. 양심성찰은 여러 형태로 전해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순서를 따릅니다.

사목국 기획연구팀

<1단계 - 준비기도>

집이나 직장에서 십자가나 성화 등 성물 앞에 초를 켜 두고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기도 자리를 만들어 봅니다. 또한 가급적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를 바칩니다. 준비 기도는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성찰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다음의 기도 또는 자유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저를 비춰주시어 제 자신을 잘 살피게 하소서.”

<3단계 - 통회와 결심>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한 깊은 통회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에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만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지 결심합니다. 이러한 통회와 결심 또한 노트에 적어 봅니다.

<2단계 - 성찰>

성찰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원인과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 ① 삶 속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 경험했던 일들 속에서 내 안에 일어난 감정(질투, 미움, 분노 등)과 생각, 반응을 떠올려봅니다.
- ② 그 감정, 생각, 반응들의 원인을 천천히 살펴봅니다(예를 들어 남을 미워했을 때, 그 원인이 상대방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 나의 약점을 건드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 ③ 하느님께서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살펴봅니다. 이때 그날의 복음을 읽으며 성찰하셔도 좋습니다. 성찰한 내용은 따로 노트를 마련하여 꾸준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 감사기도>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성찰을 마칩니다.

이러한 양심 성찰을 매일 꾸준히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 봉헌한다면, 하느님의 은총으로 거룩하게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을 찾고 있지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면,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매일같이 기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 마더 데레사 성녀 -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의 원조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의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나자로의집 보호작업장

“ 주방 이전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식사시간 보장 ”

서울 관악구 언덕의 마지막, 장군봉 초입에는 ‘나자로의 집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1991년 가장 높은 언덕의 마지막 빌라에 부모들의 노력으로 마련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입니다.

1976년 3월에 준공되어 현재 만 43년이 된 이 빌라 건물은 고칠 곳이 많아 구청에서도 1순위 위험 시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건물의 일부 보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노후화된 전기배선과 수도공사 등 규모가 큰 공사의 개보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편의를 위해서는 주방 이전 공사가 시급합니다. 식사 장소는 1층인데 비해 주방은 지하 1층에 있어, 배식을 위



해 주방에 가기 위해서는 출입문으로 가기 위한 계단과 지하 1층까지의 외부 계단, 찾길을 통해야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위에 쉽게 노출이 되어 따뜻한 식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인분들이 식판을 들고 계단을 이동하면서 넘어지거나 신발을 바꿔 신을 때, 음식물을 쏟게 되면 화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30명의 장애인분들이 차례를 지켜 들어가게끔 지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동으로 인한 부딪침이 많고 사고 발생의 위험도 높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고민을 해봤지만, 주방과 식사 장소 간 이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자로의집 보호작업장 자모회 및 주변 부모님들의 경우도 기관을 방문하면서 불편함을 느껴 무엇보다도 주방을 1층으로 이전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희망하셨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대공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관의 기금 마련을 하기에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방을 1층으로 이전하면 자원봉사실과 작업장 공간이 없어지므로 지하 1층은 자원봉사실과 창고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주방 이전으로 장애인분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과 시설을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식사 제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 안동 안나의 집 (서울주보 2017년 5월 28일 자에 게재) -

<안동 안나의 집>이 2020년 하반기 폐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모금된 후원금(56,057,567)에서 일부분은 시설관리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남은 후원금 전액은 '안동교구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2020년 9월5일~10월2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나자로의집 보호작업장'을 위해 쓰여집니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홈페이지(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는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말씀 주제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주보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주보에서 변함없이 계속 연재되고 있는 코너는? 네~ ‘말씀’에 대한 해설이죠. 매주 신부님들이 그 주일의 복음 말씀의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1979년 10월 7일의 주보 1면에 깜짝 놀랄 제목이 등장합니다.

“이혼할 사람은 다 내게 오시오”

책이나 글은 제목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책을 고를 때 당연히 첫 장에 있는 제목을 봅니다. 제목은 그 책의 대문과 같은 것이죠. 제목 짓기는 어쩌면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동시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제목을 지을 수 있을까요?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독자에게 궁금증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책 제목이나 주제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쓰인 글, 특히 주보 말씀의 제목으로 ‘이혼할 사람은 다 내게 오시오’는 사람들을 몹시 궁금하게 했을 것입니다. 혹자는 주제가 강론과는 안 맞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뭐라고 썼길래?”하면서 글을 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제목은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 생각합니다. 1970년대 후반의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저자는 분명히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예화와 속담과 유머를 적당히 섞어가면 독자의 눈을 사로



◆ 말 씀 ◆

결혼한지 만 3년이 지난 부부였다. 신혼의 단꿈도 지나간 추억의 한도막일 뿐, 이제는 살기에 바쁘기만 하단다. 그들은 어느날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급기야는 이혼하자는 말까지 튀어나와 버렸다. 서로의 원죄의 양보도 할 생각이 없었다. 말하자면 아내는 어느새 까만 고양이로 변했고, 남편은 돌게로 변했다. 드디어 둘은 그전에 주례서준 본당신부를 찾아가서 이혼의 가능성 여부를 물었다. 그랬더니 그 본당신부는 의외로 쾌히 승락하면서 옛날에 혼배하던 바로 그자리로 안내하였다. 그리고 본당신부는 장백의와 영대를 걸치고 나와서 이혼예식을 거행하였다. 유난히도 방울이 큰 성수채를 들고서 구랑(田郎)과 구부(田婦)의 앞이마를 “독목” 치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성수를 뿌리는 예식인데 반드시 이마에 성수채의 방울이 떨어야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두번 “독목” 치고 마는것이 아니라, 열번, 스무번 계속 목덜미상태로 치는데 땀수가 더할수록 치는 강도도 더 세었다. 두사람의 이마에는 어느새 빨갛게 멍이는 혹이 커지기 시작했다. 참다못해서 구랑이 물었다. “아니, 신부님, 이혼예식은 언제나 끝나지는 않습니까?” 본당신부 왈 “응, 한쪽이 죽어야 끝나지!” 하더라는 것.

외국숙대에 이런 말이 있다. 「저센 풍랑의 바다로 나갈 때는 한번 기도하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두번 기도하라, 그러나 결혼식에 나갈 때는 세번 기도하라」

오늘 복음에 예수께서는 “하느님이 꼭 지어주신

〈이혼할 사람은 다 내게 오시오〉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에 와서는 서구사회뿐 아니라 동방예의지국이라 자처하던 우리 나라에서도 이혼이 쉽게 허락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도대체 변소에 들어갈 때와 나갈때의 마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무슨 영화제목 같은데?)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분석해 봐야겠다. 사랑을 할 때는 눈이 멀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열애에 빠지면 상대방이 깨곰보라도 그 구멍 하나하나가 마치 귀여운 보조개처럼 보일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상대방의 약점, 단점, 결점, 실수들을 모두 아낌없이 볼 수 있는 마음이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모든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신의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바로 크리스찬 사랑의 자세이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만은 눈이 먼 상태가 차라리 아름다운 상태인 것 같다. 그리스도의 어리석음이 바로 그런것 아니겠는가? 두눈을 부릅뜨고 “종이야 팔이야” 참도 끝내내는 능숙한 속셈이 사랑일 줄 없다. 세기의 대 역설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외치셨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둘째가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Mc, 9:35)

결혼생활이란 서로 편리하게 상대방을 부려먹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상대방을 섬겨보라. 그래야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 그 본당신부를 찾아가면 될 것이다. (연락처: 712-1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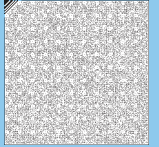
까?’ 누구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궁금증은 한 달 후, 11월 18일 자 서울주보 ‘누룩’편에 ‘이혼할 사람은 다 내게 오시오(속편)’에서 풀렸습니다.

저자는 당시 사제서품 9년 차 김충수 신부님이었습니다. 김 신부님은 항상 유머와 위트가 있는 강론으로 신자들을 즐겁게 해주셨고 항상 춘철살인의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속편에서 김 신부님은 2주 넘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벨이 울려 상담을 하느라 녹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본당을 찾아 직접 면담을 한 신자들도 있었죠. 김 신부님은 상상을 초월한 특이한(?) 상담 사례들을 열거하며 이혼의 문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지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혼문제는 인간적으로 보다 신앙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신부님의 묵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말씀의 주제로 신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과 실제로 주보를 통해 신자들과 이렇게 직접 신앙적인 소통을 이룬 사례가 또 어디 있을까요? 참 신선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6 서울주보

명동 밥집

힘겨운 코로나19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있을까요?
아무도 예측할 순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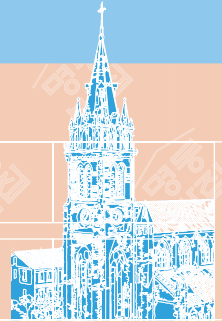


명 동 에 밥 집 이

생 김 니 다

차 이 점 이

있 습 니 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마음 편하게 눈치 보는 것 없이 배불리 대접받는 곳이 바로 하느님의 식탁일 것입니다. 서울대교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품어주던 보호처이자, 한국 가톨릭 교회의 상징인 명동에 누구든지 와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무료급식소 '명동밥집'(한마음한몸운동본부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 14.16)

정해진 시간에 줄을 서서 먹는 배식소는 물려 드는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빠르게 배식이 이루어지기에 인격적인 만남의 기회가 적습니다. '명동밥집'은 열린 시간에 와서 식사와 함께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봉사자들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상처 받은 이들을
치료하는 야전병원이다.”
- 프란치스코 교황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세계와 양극화된 우리 사회 모습 안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환대해주는 공간이 될 '명동밥집'이 잘 시작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와 봉사로 함께해주세요.

'명동밥집' 축성식 및 운영

축성식

2020년 11월15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운영일 및 운영시간

축성일~매주(수·금·일)
11시~16시30분(주 3일)

- 향후 3년간 주 5일 운영으로 확대 예정
- 코로나19로 현장배식이 어려운 경우 도시락으로 전달

후원 안내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4-022962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후원금 및 물품 후원도 가능
- 후원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무통장 입금 후 본부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꼭 알려주세요.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을 보내주시는 분 성함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 02)774-3488

봉사자 모집

봉사분야 음식조리, 배식, 주방 및 청소 등

모집기간 10월31일까지 1차 모집

모집인원 00명(개인 및 단체 신청 가능)

봉사시간 1회 5시간(봉사자 모집 인원 에 따라 스케줄 조정예정)

봉사신청 <http://naver.me/GxsSnGBI>

관련문의 02)727-2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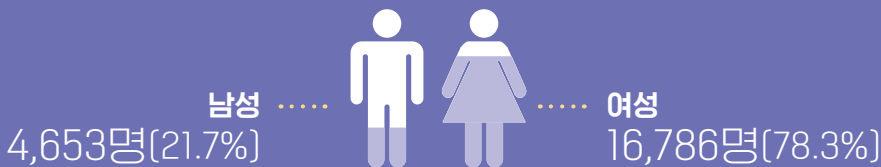
<봉사신청
QR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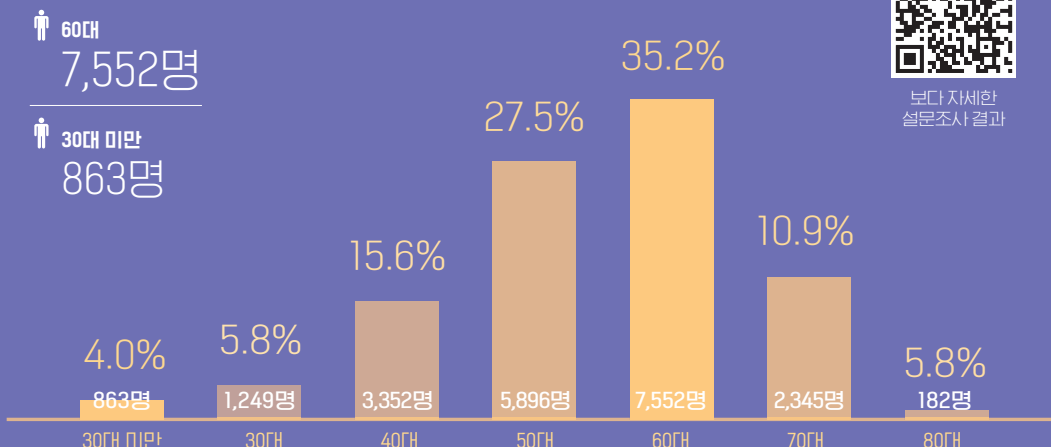
코로나19와 신앙생활

7월 17일(금)부터 26일(일)까지 열흘 동안 교구 사목국에서는 '코로나19와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맞추어 교구 신자들을 위한 사목 대안을 마련하고자 신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21,439명



이번 설문조사는 Google 설문지를 통하여 실시된 온라인 설문이었음에도 총 응답자 21,439명으로 매우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설문은 신앙을 살아가는 데 있어 신자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또 사목적 필요는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여성은 16,786명(78.3%)으로 4,653명(21.7%)이 참여한 남성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60대 신자들이 7,552명(35.2%)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30대 미만의 신자들이 863명(4%)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 '코로나 신앙생활' 설문조사 응답자 연령대별 분포도 •

설문결과 ①

코로나19로 인한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복수응답)

55.4% 미사와 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것

45.1% 신앙생활 전체가 위축될 것만 같은 걱정

31.9% 신심 단체 및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고립감

10.7%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나 불필요하다는 느낌

기타 의견

미사 참석이나 신앙교육,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의 신앙교육이 단절됨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위축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미사가 재개된 상황에서도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미사가 귀찮게 느껴지거나 또 불편하며, 참석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또한 본당 사제와 수도자, 사목위원들이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체계적인 방역이나 사목적 대처 없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



공동체 미사

성체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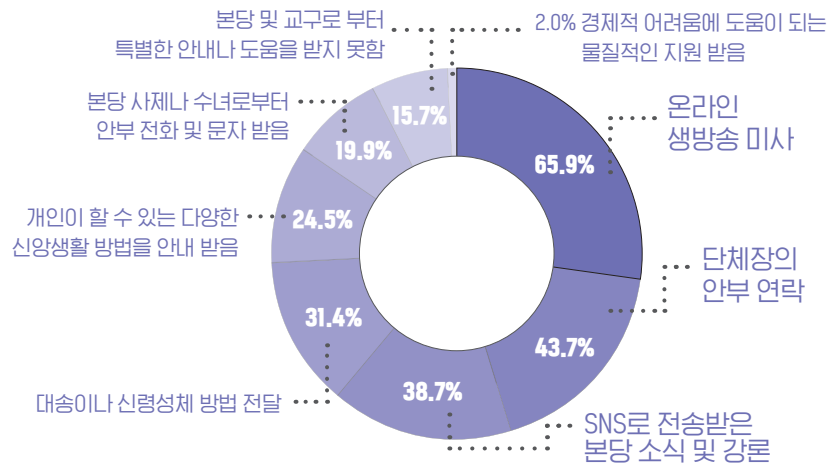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실천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에 생겨난 변화에 대한 5점 척도의 질문을 살펴보면,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있어 공동체 미사와 성체성사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신앙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당의 교구들과의 모임, 친교에 대한 갈증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교회의 가르침이나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많은 신자들이 코로나19 이후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음에도 함께 기도하거나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많이 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문결과 ②

본당과 교구로부터 받은 도움은?

(복수응답)



설문결과 ③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본당이나 교구에 바라는 점

주관식 의견 7,54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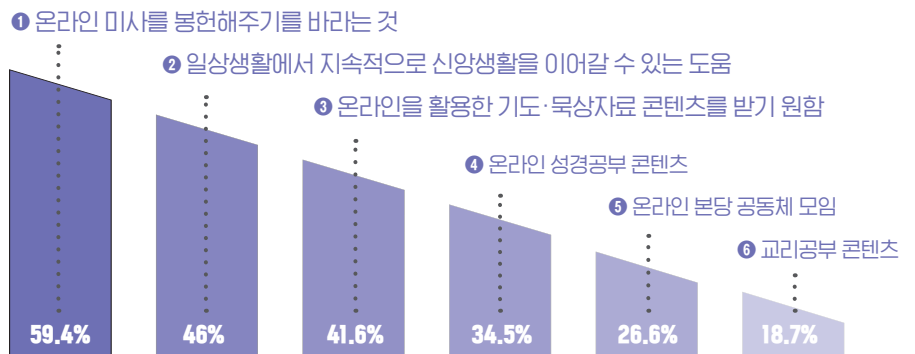
- 열심한 신자들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신자들에게도 본당 소식이나 신앙 관련 콘텐츠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
- 전체적인 사목 방향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디지털 취약 계층이라 할 수 있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
-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신자 스스로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기도와 묵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신자 신앙생활 지침서를 마련

* 특이사항: 많은 신자들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온라인 미사보다는 온라인으로 할지라도 본당 공동체원들과 본당 사제가 함께 드리는 미사에 대한 욕구가 많았음

또한 방역 지침을 충실히 준수하는 가운데 미사 전례를 더 풍요롭게 봉헌하거나 공동의 고해성사 같은 방식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의견 있음

설문결과 ④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미사와 모임이 중단될 경우, 받길 원하는 신앙적 도움은?



* 온라인 신앙학교 프로그램(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성경이나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습 과정)의 필요성과 참여 여부에 관한 질문은 응답자 가운데 70~80%의 신자들이 필요하고 또 마련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난 점은 힘든 상황에서도 교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하려는 사제와 수도자들, 본당 단체장들에 대해 깊은 감동을 느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실망과 박탈감마저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제의 존재 자체가 신자들을 기르는 영적인 양식으로, 즉 살아있는 성체성사가 되어 신자들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기존의 방식으로만 사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방식과 표현을 통해 진정 새로운 복음화를 실현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번 설문을 통해 교구 신자들 모두 교회와 함께, 교구와 하나되어 이 어려움을 이겨낼길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견을 내주신 많은 신자분들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긴급히 요청되는 사안들을 식별하여 사목적 대안들을 마련하는 서울대교구가 되겠습니다.

최익철(베네딕토)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최익철(베네딕토, 98세) 신부님께서 지난 8월 22일(토)에 선종하셨습니다. 최익철 신부님은 1923년 황해도 안악군에서 출생하여 1950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황해도 사리원성당, 군중, 성신고등학교 교사, 이문동·가회동성당, 성모병원(현. 여의도성모병원) 원목, 금호동·오류동·해방촌·세종로·신천동·명수대(현. 흑석동)·마천동성당에서 사목하시다가 1998년 원로사목자가 되셨습니다. 8월 24일(월)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38년 9월8일 김성학 알렉시오 신부(68세)
- 1954년 9월7일 이완성 요한 신부(40세)
- 1978년 9월12일 조인원 빈첸시오 신부(71세)
- 2002년 9월9일 최서식 라우렌시오 신부(65세)
- 2009년 9월12일 남영희 이시도로 신부(74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교구정일림

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당분간 휴강하며, '거리두기' 종료 후 재개합니다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자살 유가족을 위한 1박2일 피정

때: 10월9일(금) 14시~10월10일(토) 14시
곳: 우이동 명상의집 / 인원: 약 20명(전화 면담 접수)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천주교 서울대교구 추석 성묘 취소 안내

8월30일 주보에 공지되었던 서울대교구 묘원(천주교용인주묘공원·비봉주묘관) 추석미사(9월27일)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02)727-2225 서울대교구 장묘관리팀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지구별 상담소: 5지구(노원성당), 9지구(천호동성당), 13지구(삼성산성당), 17지구(화곡분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 / (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 / (월~금) 10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슬기로운 부부생활을 위한 자연주기법(NFP) 기초교육

때: 10월15일~12월17일 매주(목) 20시~22시(10주)
강의방식: Zoom(화상회의)을 통한 온라인 강의
대상: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는 분들 / 회비: 부부 5만원, 개인 3만원(교재 포함)
접수기간: 9월25일(금)까지 선착순 모집
사전모임: 10월8일(목) 오후 7시
문의 및 신청: 02)727-2351 생명위원회

제30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 공모

부문: ① 신문·출판 부문, ② 영화·TV 부문, ③ 라디오, 인터넷 부문 / 대상: 2019년 5월1일~2020년 10월31일 사이 발표된 작품
시상: 12월2일 시상식(대상 500만원, 부문상, 특별상 각 300만원) / 접수: 10월3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mscm@cbck.or.kr)로 접수
문의: 02)460-7626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bck.or.kr) 참조

2021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구분: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교자, 수도자, 만학도(1986년 2월28일 이전 출생)
모집전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학교장추천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원서접수: 9월23일(수)~28일(월) 인터넷 접수
고리시험: 면접: 11월27일(금) / 문의: 02)740-9704, 9705
홈페이지: http://songsin.catholic.ac.kr

2021학년도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신입생 모집

'화요일아침예술학교'는 가정환경으로 인해 미술에 대한 꿈을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 일반교육과정과 함께 미술심화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학력인정 대안학교 '각종학교'입니다 미술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미술적 재능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자립을 돕고자 설립된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산하의 기숙형 여자미술고등학교입니다
모집인원: 여학생 13명 / 원서접수: 10월12일(월)~11월2일(월) / 문의: 070-8891-3831 교무실
홈페이지: www.flowerdaymorning.com

제37기 천주교 생태영성학교

대상: 하늘땅물빛 회원, 생태와 영성에 관심 있는 신자
때: 9월15일~11월10일 매주(화) 20시~22시(총 8회)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회비: 6만원(선착순 45명 접수)
접수: 9월10일(목)까지 환경사목위원회 홈페이지(www.ecocatholic.org) 내 생태영성학교 교육 신청, 팩스(02)727-2271, 이메일(ecocatholic@hanmail.net) 신청도 가능 / 문의(접수): 02)727-2283 환경사목위원회

9월15일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이계돈 신부(대전교구 가톨릭대학행정지원교수)
9월22일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조천호 박사(경희대 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10월6일	생태위기의 근원들과 통합생태론	조현철 신부(예수회, 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
10월13일	점근법과 행동 방식	황인철 탐장녹색연합, 기후에너지
10월20일	생태 교육과 생태 영성	문점숙 수녀(노들담수녀회, 인천교구 환경사목부)
10월27일	생태위기의 극복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법	김연지 박사(서울시 에너지시민행력과 과장)
11월3일	피조물에 관한 복음	백종현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11월10일	나눔 및 수료미사	사제단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한국천주교 103위 순교성인화 특별전: 전관
전시일정: 9월4일(금)~27일(일)

사회교정사목위원회 9월 후원회원 월례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9월 후원회원 월례미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없습니다 비록 모여서 미사봉헌하지는 못하지만, 교정사목위원회 신부들이 언제나 후원회원님들을 기억하며,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지향으로 미사와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 02)921-5094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위생팀 직원 모집

분야: 위생팀(계약직) 1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9월13일까지 접수
문의: 02)740-9708(http://songsin.catholic.ac.kr)

노량진동성당 주방근무자 모집 / 문의: 02)824-9621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로 신심이 깊으며 성실하고 건강하신 분 / 인원: 계약직 1명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우편(우 06924,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24길 61) 접수

강일동성당 사무장 모집 / 문의: 02)442-1244

대상: 세례받은 지 5년 이상된 교우로 사무행정·회계 업무 및 PC 가능한 분 / 분야: 사무장 1명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9월17일(목)까지 방문·우편(우 05286,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476(강일동) 강일동성당) 접수

잠원동성당 관리인 모집 / 문의: 02)595-2416, 7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성실한 교우 / 분야: 관리인 1명
업무: 시설물 관리, 미화 방호 등(공조냉동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9월20일)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9월18일(금)까지 본당 사무실 방문·우편(우 06520,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110 잠원동성당 사무실)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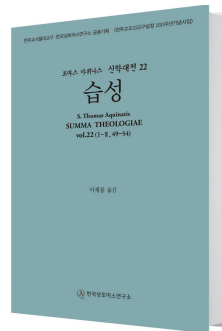


신간

신앙레시피

고준석 지음
기쁜소식 | 174쪽
1만원 | 문의: 02)762-1194

서울주보에 '신앙레시피'로 연재되었던 내용을 엮었다. 가톨릭교회교리서를 중심으로 핵심을 추리고, 신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 설명했다. 하느님과 예수그리스도는 어떤분인지, 또 성사생활과 기도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등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알려준다.



신간

토마스아퀴나스
신학대전 22 습성

이재룡 옮김
한국성토마스연구소 | 292쪽 | 2만원
문의: 02)762-1194

교부들의 그리스도교 사상을 종합한 신학대전 중 인간의 습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습성' 번역본이 우리말로 나왔다. 성 토마스는 참 행복에 필요한 덕을 일종의 습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결실을 풍부히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마켓

가톨릭 프리마켓
평화마켓 온라인 오픈

네이버 카페에 '가톨릭 프리마켓 평화마켓'을
검색해 보세요 / 문의: 02)338-7832
<http://cafe.naver.com/jupeacemarket>

가톨릭 프리마켓 평화마켓은 청년 작가들을 응원하며, 다양한 작품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핸드메이드 가톨릭 성물, 다양한 굿즈, 생활 소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더 가깝고 편리하게 상품과 이벤트를 만나보세요.



전시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피어라, 신앙의 꽃”

때: 9월4일(금)~27일(일)
곳: 갤러리1898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문화예술위원회는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아 1984년 성인품에 오른 한국 103위 순교 성인들의 개별 초상화 전체를 시성 36년 만에 전시한다. 새로 제작한 77위의 초상화와 기존에 제작된 초상화도 대어해 103위 성인들의 초상화를 사상 최초로 함께 선보인다.



순례로 준비하는 희년의 기쁨 9월愛 동행

■ 순교자성월을 여는 미사

9월1일(화) 오전 10시, 절두산순교성지 아오미사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집전

■ 청소년·청년 순례길로!

8월15일(토)~9월26일(토)

참여 방법: '서울순례길'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이벤트 참여

■ 순교자성월을 닫는 미사

9월27일(일) 오후 3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주교 집전

■ 문의: 02)2269-0413(www.martyrs.or.kr)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걸으며,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행을 청합니다

■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8월15일(토)~9월27일(일)

참여 방법

- ① 성지 및 순례지(이곳)에서 순례자여권세트 구입
- ② 천주교 서울 순례길 걸으며 스탬프 찍기
- ③ 9월27일(일) '순교자성월을 닫는 미사'에 참여하여 스탬프 찍은 순례자여권 제출 후 축복장 수령

※ 구입처: 가회동성당, 광희문순교자현양관, 교구 역사관(영등), 국군중앙성당(해고개성지), 당고개순교성지, 삼성산성당, 새남터순교성지,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절두산순교성지, 종로성당, 종림동약현성당

※ 순례자여권세트 구입비는 전액 이웃사랑실천
기금으로 사용

본당 재정 확충을 위한 2020년도 교무금 책정·납부 요청

한국 천주교회의 상징인 명동대성당은 현재 긴급하지 않은 비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정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주일헌금과 신자들의 의무 봉헌금인 교무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8월 1일 기준, 명동에 교적을 두고 있는 **전체 19,364세대 가운데 교무금을 책정하신 세대수는 2,768세대로 전체 대비 14.29%밖에 미치지 못하며, 책정하신 세대 중 실제로 교무금을 납부하고 계신 세대수는 2,175세대로 이는 전체 대비 11.23%에 불과합니다.** 교무금을 충실히 납부하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현이자 하느님 자녀된 우리 믿는 이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껏 봉헌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교무금 책정을 못 하신 분들께서는 본당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책정·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경우 교무금 책정을 먼저 하고 이체하셔야만 장애(납부자 확인 불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명동대성당을 위해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부 전시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8월 24일 ~ 8월 30일 : 1,170,000원)
누계 : 1,537,345,123원

김 안 나 : 1,000,000원 익 명 : 100,000원
익 명 : 50,000원 이 경 선 : 20,000원

기부 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코로나19에 따른 본당 운영 지침 안내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상설 고해성사, 본당 제 단체의 모임과 회합, 외부 대관행사는 '계속 중단'됩니다.

◎ 늘푸른청년 주일학교 개강 취소

하반기로 연기하여 개강 예정이었던 35~45세 청년 대상의 늘푸른청년 주일학교 강의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최종 취소되었습니다. 개강을 기다려 주신 청년 교우분들의 너른 양해 바랍니다.

◎ 2020년 하반기 견진성사 신청 ☎ 접수인원 변경

·교리시간 : 9월 27일 ~ 10월 18일 (매 주일) 4주간
오후 2시 ~ 3시 30분 / 교스트 홀

★★ 오후 2시 이후 입장 불가,

4주 모두 참석해야 견진성사 가능 ★★

·견진성사 : 10월 25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신청대상 : 세례성사를 받은 20세(2001년생) 이상 교우
·신청기간 : 8월 29일(토)부터 본당 사무실로 접수
·접수인원 : **100명 정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

·구비서류 :

대상자	구비서류	발급장소
명동성당 교적 신자	① 증명사진 1장	-
	② 세례성사증명서 ③ 견진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교적 본당
	④ 견진 대부모님의 견진성사증명서	대부모님의 견진본당
	기본 구비서류(①~④)	
타 본당 교적 신자	⑤ 신청자의 교적증명서	교적 본당
	⑥ 견진의뢰서	

※'견진의뢰서'는 견진신청서 본문 중앙에 명시되어 있으며, 반드시 교적 본당 주임신부님의 서명 또는 직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기 안내된 서류를 빠짐없이 모두 갖추어 본당 사무실로 제출 시 신청 완료!

※인터넷 견진교리 수료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비 용 : ① 접수비 10,000원(사진값+꽃값)

☎ 교육 당일 현장 납부

② 감사예물 ☎ 별도의 자유 금액

·문 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 청소년봉사분과 주일학교 관련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 첫영성체는 취소되었고, 초등부·중고등부·솔봉이 주일학교 개학은 추후 별도 공지 시까지 계속 보류됩니다.

◎ 미사 시간 재편에 따른 본당 사무실 업무 시간

요 일	근무시간	비 고
화~금	09:00~19:00	평일(화~금) 점심시간 [12:00~13:00] 사무실 폐문
토요일	09:00~20:00	
일요일	07:00~20:00	

◎ 성당 내 음식 및 음료수 반입 금지

성당 안은 하느님께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장소입니다. 성당 안에서 음식물과 음료 등을 섭취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며, 특히 영성체 한 시간 전에는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신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공복재)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성전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774-1784(TEL)
753-1784(FAX)

☎ 본당 연회 ☎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 환영미사 및 약력 》

9월 6일(주일) 낮 12시 교중미사는 새로 부임하신 이길재(베드로) 수석부주임 신부님의 환영미사로 봉헌됩니다. 따뜻한 환영과 많은 기도 바랍니다.

약 력

※ 이길재(베드로) 수석부주임 신부 ※

2006. 7. 7. 사제 서품
2006. 8. 25. 새 사제 학교
2006. 11. 21. 고덕동 성당 보좌
2008. 12. 9. 난곡동 성당 보좌
2011. 2. 22. 대치2동 성당 보좌
2013. 2. 12. 연희동 성당 부주임
2015. 2. 17. 바오로 사목연수
2015. 9. 1. 가톨릭평화방송 · 신문 주간
2019. 2. 12. 이문동 성당 부주임

◎ 명동대성당 평일 · 주일미사 시간 (9월 5일부터 적용)

요 일	미사시간
월~금	10:00, 18:00
토요일	10:00, 18:00, 19:00(늘푸른청년미사)
일요일	7:00, 9:00(영어미사), 10:00,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상기 모든 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되며, 미사 시간 외에는 대성전을 폐쇄합니다.

※토요일 오후 6시 · 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교우분들의 안전한 귀가와 성전 방역 작업을 위해 일요일 오후 9시 미사는 당분간 재개하지 않습니다.

※체온 측정과 신원 확인 등의 사전조사 후 이상이 없을 시에만 미사 참례 가능합니다.

※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위해 미사 한 대의 참례인원은 250명 내외로 제한됩니다.

※주일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

※성당 경내 출입은 매일 첫 미사 시작 1시간 전부터 마지막 미사 종료시각까지만 가능합니다.

◎ 대입 수험생들을 위한 54일 기도 모임 취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올해는 대입 수험생들을 위한 54일(10월 10일~12월 2일) 기도 모임이 없습니다.

《 추석 합동 위령미사 》

10월 1일(목) 「추석」 당일 거행되는 모든 미사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추석 합동 위령미사에 미사 지향 접수하실 분들은 9월 29일(화)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하시거나 추석 당일 합동 위령미사 시작 전, 제대 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직접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합동 위령미사 ☞ 오전 7시, 10시 / 오후 6시

◎ 추석 연휴 기간 본당 휴무 안내

본당 사무실은 9월 30일(수)~10월 2일(금) 휴무이고, 10월 3일(토)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근무합니다.

※연휴 기간 미사는 변동 없이 그대로 봉헌됩니다.

◎ 지하성당 한시적 개방 ☞ 무기한 연기

순교자 성월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다섯 분의 성인(성 앵베르 주교, 성 샤스탕 정 신부, 성 모방 나 신부, 성 김성우 안토니오,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과 네 분의 순교자(푸르티에 신부, 프티니콜라 신부, 1839년 기해 박해 때 순교한 무명의 순교자 두 분) 유해가 모여져 있는 지하성당을 한시적으로 개방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너른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예비신자 교리학교 운영 중단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예비신자 교리학교는 운영이 중단되었고, 9월 예비신자 교리반은 개강을 취소하였습니다. 교리학교 운영 재개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한 헌금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올해는 성주간 공동체 예식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성금요일에 실시하는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한 헌금'을 다음 주일(연중 제 24 주일)에 실시합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8/24-8/30).....28,571,130
• 연중 제 22 주일 헌금.....7,798,000
• 청소년 주일 2차 헌금.....2,362,000
• 감사헌금 (8/24-8/30).....13,900,000
강 카밀라 / 김 데레사 / 김 세곤다
박 베드로 / 박 아브라함 / 박 에테니아
박 요셉 / 서 파멜라 / 송 율리안나
이 마리아 / 이 요한 / 이 이냐시오 / 이 켈마
임 베로니카 / 전 마리아나 / 정 안젤라
한 그레고리오 / 익명(3)